

<한국비료>

탈비료 · 사업다각화 성공 안정성장 구가

한국비료(대표 유경중)는 91년 매출액 1889억3000만원으로 90년대비 18.9% 성장했으며, 경상이익도 118억2000만원을 올려 90년 73억7000만원대비 무려 60.4% 대폭 신장했다.

당기순이익은 54억원의 특별손실에도 불구하고, 43억원을 올려 90년 정밀화학분야 신규투자로 인한 17.2%의 감소율을 4.8% 증가로 전환시켰다.

91년 주가 역시 최고 5만2000원, 최저 4만8000원으로 주당 배당률이 연간 12%를 유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비료가 이처럼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인 것은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른 비료출고가격 인하와 내수시장 정체로 인한 비료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화공기기 및 정밀화학분야의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1> 한국비료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

(단위:억원, %)

항 목	1988	1989	1990	1991
매 출 액	1317.6	1356.1	1587.7	1889.3
증 가 율	17.2	2.9	17.0	18.9
매출총이익	155.4	134.8	177.3	226.6
영 업 이 익	88.8	67.2	108.3	152.0
경 상 이 익	66.5	37.6	73.7	118.2
당기순이익	49.0	49.5	41.0	43.0
증 가 율	90.1	0.9	△17.2	4.8
유 동 자 산	589.4	595.8	798.0	754.1
고 정 자 산	499.4	560.4	582.8	826.1
자 산 총 계	1246.4	1382.4	1643.9	1862.8
유 동 부 채	400.9	408.4	538.3	602.4
고 정 부 채	372.7	460.8	428.1	529.5
부 채 총 계	783.8	876.2	970.4	1133.4
자 본 금	51.3	61.6	94.7	100.1
자 본 총 계	462.5	505.9	673.5	729.3

<표2> 한국비료의 주요 사업별 영업실적 및 전망

(단위:톤, 억원, %)

구 분	1990		1991			1992(예상)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증감률	수 량	금 액	증감률
요 소	287,701	409.5	269,321	470.9	19.9	281,000	484.8	3.0
멜 라 민	17,758	214.4	17,487	211.1	△1.5	20,000	217.5	3.0
M A 류	5,417	29.9	6,358	31.1	4.0	7,324	34.6	11.3
D M F	17,668	134.2	17,509	139.7	4.1	23,100	169.8	21.5
기 타	—	86.2	—	117.7	36.5	—	247.1	109.9
정 밀 화 학	—	250.4	—	288.5	15.2	—	451.5	56.5
기 타	—	714.4	—	918.8	28.6	—	995.1	8.3
총 매 출	—	1587.7	—	1889.3	18.9	—	2148.9	13.7

주) 증감률은 금액기준, △는 감소

한편, 한국비료는 비료산업 사양화 추세에 대비 탈비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화학비료인 요소가 전체 매출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5.8%, 91년 25%, 92년 22.5%로 매년 축소되고 있으나, 정밀화학분야는 91년 12월부터 시작된 염화메탄 유도품의 본격판매 및 신규사업 참여로 기대되는 수입대체효과로 92년 정밀화학부분 매출액이 45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전체 매출액 가운데 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기제작사업 역시 91년 377억9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매출비중 20%를 차지했으며, 92년에도 국내 석유화학 신증설에 힘입어 전년대비 25.8%의 신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기존제품인 요소 및 멜라민분야의 성장률은 각각 3.0%로 주춤세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요소 성장 둔화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과의 경쟁에서 원료비가 높은 국산수출이 막혀 있는데다 내수부분도 농업용 및 사료용 수요가 감소 추세이고, 공업용도 인도네시아의 한국시장 침투 적극화에 따른 합판용 접착제의 수요감소,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검출로 인한 식기용 성형재

료의 수요감소, 섬유산업 불경기로 인한 염색용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멜라민은 식기고급화 추세로 성형수지용 수요가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의존도가 40~50% 인데다 주시장인 도로 및 합판접착제용의 수요감소로 전반적인 성장은 둔화될 전망이다.

<화학저널 1992/6/1>